

구 ·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축

독일인의 정신적인 고향이라 하고 ‘아버지 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라인강. 노르트르하인 · 웨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의 주도(州都) 뒷셀도르프에 흐르는 라인강변은 항구가 되고 또 시장이 되어 이 도시를 만들어 왔다. 20세기에는 무역항과 관세항(關稅港)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그 후 폐항되었다. 그 적지(跡地) 19ha을 재개발하는 계획이 ‘메디어 · 하버 · 뒷셀도르프’다.

거의 20년전부터 시작한 워터프런트 재개발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축이 구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주수상실(州首相室)이 들어가는 문형(門型)의 유리 건축이 뒷셀도르프의 ‘새로운 도시 문(門)’으로 솟아 있다.

텔레비전국과 라디오국 등의 오피스 빌딩을 위시한 디자인 스튜디오, 레스토랑, 카페 등이 들어가는 약 30개의 건축이 항구 연변에 세워지는 두번째 구역이 전체 계획의 핵심이다.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되어 그 전경을 내다볼 수 있다. 약 30개의 건축은 다양한 볼륨과 높이 그리고 외벽 소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건축가 Frank O. Gehry씨에 의한 3개의 부정형(不定形) 건축은 그 형태의 기발함과 참신함에서 건축이라기보다 3체(郎)의 조각과 같다. 이 3개의 건물은 연와타일, 스테인리스, 백색페인트 뿐어붙임 등 각기 다른 외벽 마감을 하고 있다.

다음의 전체도를 보면 3개의 중앙건물을 중심으로 부지 위에 지구의 경위선이 그려져서 아메바 모양으



높이 234m의 라인 · 타워와 Frank O. Gehry씨에 의한 스테인리스외장의 오피스빌딩. 사무실에는 광고대리점 등이 들어와 있다.

건축규제는 없으나 계획안을 보고 시설을 유치

'메디어 하버 · 뒷셀도르프'

프로젝트 매니저

알프레드 · 다루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완성한 것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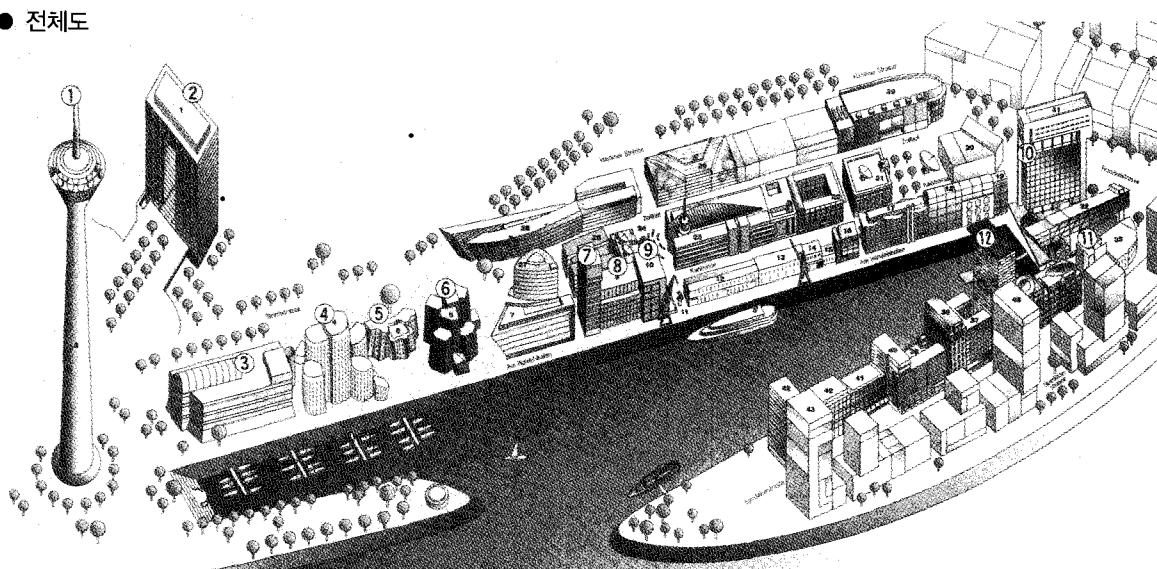
인 많은 우수한 설계자에 의한 것이 고 하는 기저가 있기 때문에 '스크랩' 다. '하버'라고 하는 배경상, 또는 '미 앤드 벨드'적인 워터 프런트 계획이 디어'라고 하는 용도상 국제적인 건축 되어 있는 않았을 것이다.

가의 활약은 이 프로젝트로서는 바람 또 시 당국이 이 적지에 시설을 유치

할 때 디벨로퍼와 건축가가 계획단계

함하여 현재까지 건축계획이 결정되어 이 정도의 대규모 개발에 여러 설계에서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완성된 계 있는 것이 약 4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자를 기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획안을 검토하여 유치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 디자인은 세계 각국에서 모관을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가 없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 전체도



① 라인 · 타워

용도 : 무선방송국, 레스토랑

설계자 : 하라로드 · 다이루

② 도시문(슈타트 토오)

용도 : 노르트라인 · 웨스파센 주 수상실, 오피스빌딩

설계자 : 오버디 · 패친카 · 앤드 · 파트너

③ 스트롬로(路) 24

용도 : 서독일라디오방송국

설계자 : 파라디 · 앤드 · 파트너

④ 신(新) 쓰오르호프(백색페인트 뿐여불암 빌딩)

용도 : 오피스빌딩

발주자 : 계링 · 콘쓰애른

설계자 : 프렌크 · 오 · 캐리

⑤ 신(新) 쓰오르호프(스테인리스외장빌딩)

용도 : 오피스빌딩

발주자 : 코나프 보이스 외

설계자 : 프렌트 · 오 · 캐리

⑥ 신(新) 쓰오르호프(연와외장빌딩)

용도 : 오피스빌딩

발주자 : 필립 · 헤르쓰만

설계자 : 프렌트 · 오 · 캐리

⑦ 가이로(路) 18

용도 : 건축사무소, 오피스빌딩, 음식점

설계자 : 스티븐 · 훌

⑧ 가이로(路) 16a

용도 : 오피스빌딩

설계자 : 인겐호벤 · 오버디 · 카렌 · 앤드 · 파트너

⑨ 가이로(路) 16

용도 : 아틀리에, 레스토랑

설계자 : 데이빗 · 칩퍼필드

⑩ 가이로(路) 2

용도 : 오피스빌딩

설계자 : 요 · 쿠넨

⑪ 슈페디쓰온로(路) 7

용도 : 음식점

설계자 : 楊文彥

⑫ 슈페디쓰온로(路) 9

용도 : 오피스빌딩

설계자 : 윌리엄 · 올슬

는 것은 놀라운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될 수 있는 한 항구의 모습을 보존한다

로 펴져나간 평면형이 섬처럼 보인다. 이것은 세계의 새로운 중심, 지도상의 ‘극(極)’을 이곳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는 Gehry씨의 아이디어다.

그 서쪽의 3동이 연속하고 있는 건물은 양측이 다른 표정을 가진 중고층빌딩을 중앙의 6층 건물이 브리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다. 설계자는 각기 다른 사람으로 서측의 페어-페이스트 콘크리트 건축은 David Chipperfield씨(영국), 중앙은 Ingenhoven Overdieh씨(독일), 동측의 가장 높고 가는 건축은 Steven Holl씨(미국)로 3국의 유명건축가가 경연하고 있다.

이것의 대안부분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세번째 구역이다. 완성예정은 2010년으로 되어 있다. William Alsop씨(영국)의 컬러풀한 중고층빌딩과 朔文彥씨의 음식점빌딩, Joe Coenen씨(화란)의 사무빌딩 등이 공사중에 있다.

이와 같이 메디어하버에서는 새로운 건축군이 백화가 난만한 성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이 연주하는 멜로디는 결코 불협화음이 아니다. “오래된 항구 원래의 풍경 속에 새로운 요소를 짜 넣는다고 하는 것이 마스터플랜의 기본 컨셉이었다”고 메디어 하버 계획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알프레드 다루만씨는 말한다.

그 말대로 하천변에는 현 화물용 크레인과 선로레일 등이 남겨져 있다. 유리외장의 하이테크 건축과 모던디자인의 빌딩 틈 사이에 연와조의 현 창고가 개수되어 보존되고 있다. 안벽과 도로의 포장도 과도하게 개수하지 않고 옛모습 그대로이다.

또 옛항구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식재는 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높이 등 건축규제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장소를 계승한다’고 하는 생각이 풍경에 조화를 주고 있다. 밸런스가 있는 보존과 개발의 한 예가 되고 있다. 〈外誌에서〉

